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제8호 · 2000년 6월 1일 발행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 시에의 초대 □

골목에서

강 형 철

겨울비 봄날처럼 내리는 점심 무렵
골목에서 설렁탕을 드시고
환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노인
지나가는 토종개 엉덩이를 보시며 한 말씀

카아아 조오타
통실통실 헛 것이

순간 우렁 잡던 논두렁에서
쏟살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종달새 한 마리

전파사와 피자집 간판 밑에서도 고향이 멀지는 않다

차마 버리지 못하고 고쳐 입은 내 모직 외투에서
자운영 꽃향기 흥건하게 배어 나와
좁은 골목이 환하다

(강형철: 53회/ 송의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 同門斷想 1 □

미련한 만학 이야기

박 금 희

요즈음 광고 대사 중에 '나는 018이다'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을 패러디해서 '나는 000이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것을 본따 '나는 82화번이다'라고 혼자 말해본다. 어찌 박자가 좀 맞지 않다. 우습다. 말 그대로 나는 1982년도, 만으로 31세 되던 해, 송실대 철학과에 들어왔다. 당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에 어린 사람들 틈에서 늦게나마 예비고사를 공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 때문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자기기만 내지 인내심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일감에 들어왔고 운도 좋았던 것 같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학교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공부하는 일은 정말 죽을 맛이였다. 아이들은 올망졸망 셋씩이나 있었고 집안 일도 모두 내 담당이였다. 그래도 공부를 대충할 수 없었던 것은, 제대로 못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이 나이에 고생하며 학교에 다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대충 이라는 말은 나 스스로에게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학교 다닐 때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심리가 컸고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미 탓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제일 힘든 것이 외국어로 텍스트를 읽는 일이었는데, 그 때문에 나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챙겨주는 등 마는 등 하고 외국어 학원에 다녔다. 학원에서 바로 학교로 직행하는 일을 제법 오래 계속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외국어 문법을 안다고 해서 텍스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 또한 내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였다. 어느 날 서울대학에 계시는 L 교수님이 한사람의 철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고도서를 읽지 말고 우선 그 사람의 저서를 꼼꼼히 챙겨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내 공부의 원칙으로 삼기로 하고 언제나 교전 원서만을 읽었고, 원서든 번역판이든 다른 참고도서를 읽지 않았다. 내 편에는 외국어 실력도 늘고, 철학적 이해도 깊어지며 또한 한 철학자의 사상을 타인의 시각에 붙들지 않고 저자 자체로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한 태도는 내게 유익한 점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결과도 가져왔다. 나는 주부라는 특수한 사정상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며 함께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번역된 글들을 읽지 않으니 철학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서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때는 정말 답답했다. 그러한 태도를 끝까지 고집한 건 아니지만 대학 4년을 거의 그렇게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철학이라는 학문의 어려움을 절감하면서 석사를 마쳤고 박사과정도 들어갔다. 나는 딜타이의 인식론을 학위는

문의 주제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내 생각에는 달타이 전집을 대부분 다 읽고 나름대로의 해석이 나타나야 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은 엄청났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독일어 텍스트를 통해서만 문제를 포착하고 논문을 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나는 계속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다. 다행히 조기경 선생님 덕분에 보름에 가서 달타이 철학의 권위자인 로디 교수를 만나 그의 핵심 사상을 꿰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달타이 텍스트만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버티던 생활이 점차 비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삶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도 많아졌고 심신도 많이 쇠약해졌다. 정서적인 안정감도 많이 줄었다. 사적인 이런저런 문제들도 나를 약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드디어 마음에 병이 생겼고 급기야 몸에까지 병이 나서 오랜 세월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다.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내내 나의 부족함만을 반성하며 기도하며 지냈다. 생각해보니 내가 괴로워한 안팎의 문제들은 모두가 나의 부족함 탓인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6년여 동안 병중에 있었으니 짧은 세월이 아니다. 몸이 고통 당하는 동안 나는 그야말로 몸으로 철학을 한 것 같다. 내가 실행한 원칙들,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나의 고집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나의 고통스러운 내면의 생각들. 이 모두는 나를 죽음 가까이 까지 이끌고 갔다. 내 몸과 마음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었기에 학위논문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준비한 논문자료들을 보게 되었다. 내가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때 그 자료들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다시 도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몸이 크게 호전된 것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만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식구들 모두 걱정하고 말리면서 힘들어했다. 돌아켜 보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토록 포기하지 않도록 했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이후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차 늘어났다. 준비된 자료들은 오해된 것도 많아서 늘 다시금 텍스트를 읽어야 했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때도 많았다. 나는 여전히 달타이 텍스트 자체로부터리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다른 이의 해석을 본 경우에도 강박적으로 그의 텍스트로 되돌아가서 확인하였다. 논문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금희는 계속 공부할 것이라는 선생님들의 신뢰 덕분에 드디어 통과되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철학이라는 학문은 논문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보다 명료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학문으로 다가왔다. 1982년도에 학부에 입학해 1998년도에 학위를 받았으니 17년만이다. 힘든 중에도 끝까지 텍스트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 다닐 때 언제나 원서만을 고집했던 미련함이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학위를 받은 이후부터 나는 병에서 보다 빨리 헤어날 수 있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신이 달타이의 자기성찰적 논리를 따라가면서 정리되고 회복된 모양이었다. 고전적 의미의 철학함의 유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위는 무엇보다 자신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스스로에게 용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아켜 보면 나도 교집이 인간히 세기는 세다. (5면으로 계속)

□ 同門斷想 2 □

정보사회에 대한 반성

김 종 걸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된다. 포스트모던 사회, 멀티미디어 시대, 대중매체 (mass media), 지식정보화 사회 등. 이제 시티즌(citizen)의 시대는 가고, 네티즌(netizen)의 시대가 열렸다. 인류는 근대 시민사회를 거쳐, 정보집약 사회가 되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인터넷, 영상 서비스, 전자결재, 가상현실, 홈쇼핑, 재택 근무 등의 말은 이제 우리 귀에 친숙한 단어들이다.

이렇게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21세기 정보 사회의 꿈은 인류에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안겨주고, 생활의 편리함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는 실제로 낙관적인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류에게 모두가 갈망하는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인가? 희망적인 진보에 대한 기대에 반하여 부작용은 없을까?

소크라테스는 '반성 없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다.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고도로 발달되고 더 많은 가능성과 편리함을 더해 주는 정보사회를 반성해 보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닐까?

현대사회를 과학 기술적 입장에서 C&C(computer and communication) 시대라고 한다. 이는 컴퓨터와 통신망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대변혁을 가져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생활정보, 기상정보, 부동산정보, 취업정보, 경영정보, 여행정보, 시험정보, 연예계정보 등 수많은 정보를 들으며 살아간다. 정보가 에너지나 서비스 이상으로 유력한 자원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했고,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자본력'이 중요했지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야말로 모든 힘은 정보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의·식·주에 이어 제4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화의 물결은 비단 과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안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래혁명을 예견한 고전으로 꼽히는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보면, "정보화 사회가 성숙되면 시민 개개인이 각종 의제에 대한 반대한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 후, PC통신을 통해 투표하면 즉시 그 결과가 집계되는 전자 민주주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컴퓨터는 우리의 경제 생활도 변화시킨다. 현금 대신 전자화폐(IC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현금 소지에 따른 강도나 절도 행각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혁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영국의 소도시 스윈던 시에서는 가로, 세로 5X8cm의 명함 크기 전자화폐

사용을 실험하여, 처음에는 주저하던 시민들도 간편하고 분실이나 도난 염려가 없는 전자화폐의 안전성을 믿게 되어 전 시민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세계 현물시장은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가 만드는 '사이버 마켓'(cyber-market)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다.

미래의 정보사회는 이렇듯이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약속해 준다. 사무자동화와 인공두뇌의 출현으로 인간의 육체 노동의 수고가 덜어지며, 원거리 통신을 단거리로 축약시키고, 시간적 지체를 최소화해 주는 등, 인간의 생활 개선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볼 때 정보사회가 주는 혜택은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는 지구 공동체화를 촉진시켜 주고,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꿈이 이처럼 환상적이라고 해서 인간은 무조건 자신의 미래를 컴퓨터에만 맡길 수 없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미 은갓 부작용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도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풍요롭고 복된 삶만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각 부문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시스템이 정지되면 온 나라가 마비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밖에도 정보사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PC 통신망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정보 문제는 이미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다. 최근 음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이 확산되면서 지구촌은 온통 '사이버 포르노 신드롬'(cyber-porno Syndrome)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물리적인 방편, 즉 기술적, 법적인 규제보다도 사용자 자신의 도덕성 혁명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주역인 컴퓨터는 원래 도구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더없이 유익한 물건이지만, 자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와 손을 잡고 나쁜 목적에 악용하면 더없이 유해한 물건이 된다. 그러므로 초고속으로 변화해 가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인간성의 불변의 상수가 있음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이를 일깨워주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사회가 보다 나은 삶을 실현시킬 무한한 가능성과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이에 대한 반성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대학원/ 철학박사, 수도침례신학교 교수)

(3면에서 계속) 어릴 때 받은 종교교육 탓에 초자아가 너무 발달해서 강박증이 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미련하고 아둔하다. 그래도 돌아보면 후회는 없다. 요즈음은 학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이런저런 종류의 책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읽는다. 철학과에 입학하던 첫날 나는 교문을 들어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던 기억이 있다. 너무나 파랗던 하늘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요즈음도 학교에 들어서면 여전히 마음이 설렌다. 변한 게 없다. 두서없이 쓰고 보니 갑자기 눈물이 솟는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것도 모를 것도 같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57회/ 철학박사, 숭실대 강사)

□ 同門을 찾아서 □

『장미의 이름』, 그 새로운 주인공의 부활을 기대하며...

— 철학과 최초의 졸업생 조종남 목사를 만나다 —

· 인터뷰: 이성준(동문회 간사·대학원 석사과정), 김정미(학부 4학년)

· 경력: 김정미(학부 4학년)

56학번 대선배를 인터뷰하다

목사님이란 단어가 주는 거대한 무게가 그분을 만난다는 현실에선 적지 않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암흑의 시대, 혹은 철학이 신화의 시녀였던 중세를 배경으로 박식하고, 이성적이며, 명석하고 뛰어난 수도가 윌리엄이 한 수도원의 살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장미의 이름』이란 소설이 문득 떠올랐다. 나에게 최초로 특별한 인상을 남겨준 신화자이자 수도사인 윌리엄 같은 인물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첫인상

목사님이신 선배님을 만나기에 앞서 성준 선배가 전화로 잠깐 통화한 느낌이 56학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은 목소리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선배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을 때 받은 느낌은 나이보다 훨씬 젊은 신사의 이미지였다. “젊게 사시는 비결이 뭐예요?”라는 질문에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라고 가볍게 농담하며 웃으시던 선배님은 아직도 직접 운전을 하고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신세대 목

사님이셨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멋진 선배님과 짧은 만남은, 목사님은 왠지 고리타분하고 무서울 것 같았던 내 생각을 바꿔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어쩌면 승실에서 철학을 전공한 선배님이었기에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서울신학대학 학장을 했고, 미국에서 가르치다가... 명지대학교, 관동대학교, 또 명지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4개의 교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이사 겸 선교실장으로 있어요. 학원 선교를 코디네이트 하는 거죠. 그러나 은퇴한 사람보고 하라는 거니까 얌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국제적인 활동도, 한국 복지 재단의 이사장도 하면서... 그러나 봉사하는 집이니까... 내가 참 명지에 고마워요. 내가 서울신학대장하다가 3년 반인가 쉴 때가 있었거든. 그때 명지대학교 와서 단과대학장 하고, 사회대학장 하고 교목실장을 했어요.

— 지금 목회활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나이가 일흔 넷인데. 은퇴했지. 목사 70이면 다 정년 은퇴야.

— 저희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저희는 학번만 보고... 너무 젊으십니다...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하면서 숭실대학교 들어갔고, 미국 가서 석사 박사마치고 대학교수로 왔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 나는 상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 생활하다가 신학대학에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조교 하면서 철학과엘 왔어요. 그때 김진경이가 제일 막내였다니까. 장덕수가 있었지. 또 유명한 부흥목사 고원영 목사, 다 우리 또래라고. 조요한 선생님이 철학과 주임이셨고. 내가 58년도 졸업했으니...

공통분모

143, 145를 보고 연상되는 것은? 숭실대학교에 다니면서 이 답을 모른다면 아마도 간첩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숫자는 우리를 학교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는 버스의 번호이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소위 백사삼, 백사오로 불리는 익숙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56학번 철학과의 1회 졸업생이신 대선배님께는 글썄, 참 낯선 숫자가 아닐까? 우리들 또한 40년이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를 역시 낯설어 할 것이다. 하지만 낯선 만남 속에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비록 학교와 철학과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숭실의 철학과라는 하나의 사실이 아닐까?

— 학교 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나 생각나는 동기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았어요. 동기가 아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웠다고요. 우리 반이 20명 됐나? 우리가 철학과 제1회니까... 그렇지 아마?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공부하다가 새로 교사 짓고 갔으니까. 그때 다리가 없어 노랑진에서 버

스 내려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걸어서 갔다고. 하하하.

— 근래에 학교와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많이 달

라졌는데 한참 봄 시작할 때쯤 되면 벚꽃이 인문대 옆에 상당히 예쁘게 피거든요. 그렇게 저한테는 사진도 찍고, 그런 기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론 많이 변했겠지만 학교 다니시면서 특히 추억에 남는 장소라든가... 그때 당시에도 벚꽃이 있었어요?

못가봤네. 미안해. 그래서 내가, 갈게. 내가 한번 찾아갈게. 하하. 꼭목사님 만나 얘기 많이 들었다고. 벚꽃은 없었어. 아마 건물 하나 있었지... 노랑진에서 걸었다고. 버스도 없었어. 하하하. 돌집 하나밖에 없었어. 안병욱 선생님 강의 참 잘하시고 재밌게하시고, 조요한 선생님 참 친절하시고. 또 우리 크라스는 전부가 신앙이 좋았다구. 내가 담배 피는걸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학생 하나도 없었다구. 우리 크라스에...

— 지금 말씀하시는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그때에 신앙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에 기억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기독교 과목도 많았다구요. 아마 6과목 됐을걸. 기독교 교회사, 성경...

— 학부과정에 성경과목도 있었어요?



조종남 목사

그럼. 교양과 필수가 아마 6학점이나 됐을 걸. 한경직박사님의 사위 이영양 목사님이 가르쳤지.

— 요즘도 아직 4학점의 필수과목이 있어요. 좀 올라가야겠다. 하하하.

정체성에 관하여...

철학화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한번쯤 들었을 철학과 나와서 뭐하냐는 질문들, 혹은 무작정 점 봐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뜰스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씩씩한 기분을 느낀다. 선배님은 철학과의 정체성에 관해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이셨다. 철학과를 졸업하고 졸곧 목회자로 살아오신 선배님께게서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송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이었다.

— 제 주변에도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철학과 졸업하고 준비를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과의 1회 졸업생이시고 그 길을 계속 걸어오신 분이신데 목사님과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하는 후배들을 위해 충고 한마디 좀...

충고? 뻔히 아는 거지 뭐. 뻔히 아는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과목 있잖아요? 철저히 하라는 거지.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다. 지금은 잊어버렸지. 하지만 사고를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철학공부한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신앙과 사명감이 있고 신학 공부해야지, 하나의 직업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학생들 가만히 보면 현대에 돌아가는 흥미 있는 과목 있잖아, 그런 걸 빨리 듣고 싶어한다고. 기초를 무시하고. 지금도 독일 같은 곳에서는 기초를 많이 배우잖아요. 나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1학년들이 기독교와 문화, 뭐 현대의 윤리사상 같은

것을 배운다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대학원에 가서나 배울 과목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 신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차차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 과목들을 철저히 하라는 거지. 옛날 송실대로 돌아가야 한다니까. 하하. 그것을 하기 때문에 찬란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죠.

— 요즘 신학에 대해 어떤 쪽에서는 그것을 학문으로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학문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신학이야 접근방식이 틀리지만 그것은 학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적에 자기들 마음통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을 잘 체계화시킨 것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이 완전히 기초죠. 신학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철학이고 역사죠. 철학 공부해 가지고 취직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렇지? 철학과 사람들이 갈데 없다고 걱정하는데 말이야. 더 큰 학문을 하기 위한 학부로서 기초로 생각해야 하는 거지... 철학해서 돈 벌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철저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철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적엔 사학과에도 목사출신이 많았다고.

— 목사님도 젊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저희 학교 모습을 봤을 때 종교간의 문제들, 학생들이 체류시간 같은 경우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예전과는 환경도 많이 바뀌

었습니다. 요즘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늙은 사람들 걱정이 많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뭐. 하하하. 송실대학의 전통과 존재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하지 말아야. 그런 면에서 기독교 교회의 목사도 많이 배출했고, 우리 역사로 보면 개명기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헌을 했잖아. 사회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살리는 데 힘써주기를 바라는 거죠. 채플도 그래요. 제가 교목실장도 해봤고, 학생들이야 왜 그걸 선택이 아니냐고 강제로 하느냐고 하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떨 땐 하기 싫은 것도 공부해서 효과를 보고 그러지. 가서 은혜 받고 그러는 거지. 뭐랄까 편안하게 기회를 줘서 자유롭게 할 적엔 교육이 안 된다구. 그래서 명지학원에 있을 적에 그렇게 학생들이 데모를 했지만 필수 양보 안 했다구. 젊었을 때 조금 규제를 해야 돼.

— 지금은 특별히 일반 학생들은요, 송실대학교가 기독교대학이라고 해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거지. 내가 사실 송실대학 간 것도 옛날에 들은 송실 이름 있잖아. 처음 기독교 대학 아냐? 참 송실의 이름이 매력 있고 좋아서 송실을 찾았지. 송실의 이름이 굉장한 거 아냐? 기독교에서는, 이름 그대로 송실이 전통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좋아한다구요. 이런 학교는 전부 손자까지 배워야 한다구. 건물 좋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면 송실이 가진 특징적인 것을 살려야 된다는 거지. 미국의 어떤 학교들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캐나다로부터, 저 남쪽에서부터, 각지에서 온다고. 독특하기 때문

에, 송실대학교가 그런 전통으로 세워졌고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빛나게 살려주기를 요구하고 있어. 서울대학교가 뭐야? 나는 그런 면에서 송실대학교에 온 거 아냐. 송실이 매력이야.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는 거고. 처음으로 '유니온 크리스찬 칼리지'였다고. 평양에서 올 적에, 대학 이름이 여기가 제일 먼저라고.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 많이 배출했어. 학교가 돈 때문에 학생 많이 뽑는지는 몰라도 자랑은 아니라고.

— 동문회에 대해 바라는 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유별나게 생각할 거 없어. 보통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송실대학이 원하는 대로 정말 정직하고 보람있게 살면 그게 모교를 위하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언제 한번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그 학교 나온걸 수줍어했는데 목사님이 그 학교 나왔다고 하니깐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 하하하. 그런 거 아니겠어. 한경직 박사가 송실대학교 출신이야. 그런 동문들이 송실대학을 빛내는 거지.

남은 이야기

날씨가 정말 따사로웠던 5월의 어느 날 멋진 만남이 있어서 마음이 날씨만큼이나 따뜻해졌다. 인터뷰라고 바빴던 선배님을 불렀고 이런 저런 질문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의 차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선배님과 계속된 대화는 즐겁게 끝났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시는 멋쟁이 목사님, 오래 오래 기쁘고 건강하세요!!!

동 문화

1. 동문 동정

▶**이명수** 동문(40회·극작가,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제암리 한국인 학살 사건(일명 제암리교회 사건)을 소재로 한 그의 희곡 「총검과 처용무」가 3월 1일부터 5일까지 동경 한국 YMCA내 2·8극장에서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번역은 인천대학 조사옥(曹沙玉) 교수가 하였으며, 다가도 가나메(高堂 要)의 각색에 일본대학 연극학과를 정년퇴임한 우에다(内田 透) 교수가 연출을 맡았다.

한편 「총검과 처용무」는 내년 3월초 서울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김재욱** 동문(47회·극동방송국 총무국장) 그 동안 창원지국 근무를 마치고 지난 4월 1일부터 본국 총무국장으로서 전보되었다.

▶**이승렬** 동문(49회·신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2000학년도 제 1학기부터 모교 기독교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또한 학부 교양과정에서 "기독교의 이해"를 강의하고 있다.

▶**박삼열** 동문(60회·철학박사) 2000학년도 제1학기부터 관동대학교 겸임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박도현** 동문(대학원·새성남교회 부목사) 5월 9일 송파구 수동교회에서 열린 서울 강동노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인규** 동문(대학원·교향교회 목사) 5월 9일 상도교회에서 열린 서울 관악노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정용석** 동문(66회·청년진보당 서울시 위원회 위원장) 지난 4월 13일 총선 때 청년진보당 동작갑 후보로 출마했었다.

▶**조성길** 동문(68회·인터넷 서점 「부꾸」 www.bookoo.co.kr 운영) 5월 6일 1시 신월동 서울프라자 웨딩아트홀에서 조요한 교수의 주례로 신부 이필우(숭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양과 화촉을 밝혔다.

▶**이봉주** 동문(69회·공인중개사)과 **고은영** 동문(67회) 4월 30일 1시 국회의사당 후생관에서 한석환 교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진영윤** 동문(70회) 3월 5일 12시 경남 충무오복웨딩홀에서 한은주 양과 화촉을 밝혔다.

▶**이정곤** 동문(71회) 5월 20일 2시 부평중앙교회에서 박미정 양과 화촉을 밝혔다. 새로운 가정을 꾸민 여러 동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이성규** 동문(71회) 2000학년도 제1학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철 학 과

1. 철학과 교수 동정

▶**안병욱** 교수(명예교수) 5월 19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한국철학회 주최로 열린 '제 3회 원로 철학자의 향연'에 초대받아 그간의 활동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순** 교수(윤리학·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회장) 6월 9일 숭실대 과학관 회의실에서 「21세기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학」이라는 주제로 2000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그 자리에서 김 교수는 「21세기 기독교사회윤리학의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다.

한편 김 교수는 출석하는 벨엘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5월 14일 장립식을 가졌다.

▶**곽신환** 교수(동양철학) 5월 27일 서울대학교 경영관에서 한국철학회가 개최하는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주제: 21세기의 도전과 희망의

철학)에서 '철학사 연구와 21세기 한국철학'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광명** 교수(독일근·현대철학)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독일 훔볼트대학에서 열린 국제칸트대회에 참가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칸트의 인간학적 관심'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0학년도 제2학기부터 2001학년도 제1학기까지 연구년에 들어간다.

II. 학부 및 대학원 소식

▶3월 새학기에 1999년도에 입학한 인문대학 학생들 중에서 32명이 철학과 2학년으로 배정되어 현재 철학과 재학생 수는 90여명이 된다. 또한 올해는 1학년 신입생을 「역사·철학과군」으로 모집하여 70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내년 3월 철학과와 사학과 중에서 전공을 배정받게 된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성리에서 철학과 전체 MT를 가졌다.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과 이번엔 「역사·철학과군」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을 포함하여 약 60여명의 철학과 구성원들이 올 한해 동안 알찬 대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며, 다시 한번 철학과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5월 10일 모교 과학관 102호에서 학부 학생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임시로 운영되던 학생회가 정식으로 인준을 받았으며, 회계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현재 학부 학생회장에는 96학번 박유민 양이, 부학생회장에는 96학번 박병규 군이 수교하고 있다. 여러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5월 15일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와 함께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과 총무에 각각 구태환 씨(64회·박사과정 5학기)와 황의신 씨(71회·석사과정 3학기)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2000학년도 제2학기 석사과정에 특차

로 1명이 진학하였으며(김성은), 현재 철학과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은 모두 18명이다.

▶철학과 동문회의 후원으로 철학파가 주최하는 제4회 **송실철학강좌**가 지난 3월 23일(목) 오후 5시 모교 한경직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사는 류승국 박사(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명예교수)였으며 주제는 '한국철학의 정체(正體)와 전망'이었다.

제4회 **송실철학강좌**와 관련, **정영준** 동문(38회·성지공고 행정실장, 만오교육장학회 사무국장)은 강좌의 개최를 축하하고 철학과의 발전을 기원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 철학과와 송실철학강좌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5회 **송실철학강좌**는 지난 5월 18일(목) 오후 5시 모교 과학관 103호에서 열렸다. 강사는 박종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였으며 주제는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 유효한가?'였다.

기 타

1. 동문회 주소록 제작

▶**철학과 동문회**에서는 금년에 기존의 주소록을 보완하여 다시 제작할 계획이다. 시대 조류를 반영하여 동문들의 개인 홈페이지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 휴대폰 번호와 팩스번호 등도 함께 등재할 예정이오니 주변 동문 여러분에게 알려 완벽한 주소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문회 사무실(02-820-0370·이성준 간사)로 문의하기 바란다.

주소 업데이트

▶**최명관** 박사(명예교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소월아파트 371동 1406호
(전화) 0343-393-8597

▶**이삼열** 교수(사회철학)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5-3 이화주택 306호 (전화) 816-0825

▶**한석환** 교수(서양고·중세철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19-3 백두마을 극동아파트 965동 1401호 (전화) 0343-392-9863

▶**유원열** 동문(47회·총신예술학교 교수)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981-9번지 총신예술학교 (전화) (연구실)502-0631

▶**이승렬** 동문(49회·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겸임교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동현아파트 6동 801호
(전화) 541-3018/ 011-9045-6018

▶**양승렬** 동문(56회·송실대 강사) 서울 노원구 상계 3동 138-131
(전화) 939-5372/ 016-229-5372

▶**정세근** 동문(56회·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 1차 아파트 102동 1405호 (전화) 0431-273-0378

▶**박금희** 동문(57회·송실대 강사) 서울 강북구 미아 3동 223-2
(전화) 945-4410/ 017-209-4415

▶**김승현** 동문(59회·서울 중앙교회 목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2-8
(전화) 511-1041/ (교회) 565-1043

▶**윤은주** 동문(64회·박사과정 수료, 송실대 문예창작학과 조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2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306호 (전화) 826-7619

▶**이상범** 동문(65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
(전화) 0371-760-2138

▶**조성길** 동문(68회)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536-46호(2층)
(전화) (사무실) 3143-2206/ 017-288-9275

▶**이봉주** 동문(69회)·**고은영** 동문(67회) 서울 광진구 노유동 829 한강현대아파트 101동 2001호 (전화) 497-7570

▶**김종걸** 동문(대학원·수도침례신학교 교수) 경기도 안성시 공포면 용두리 717-3 수도침례신학교
(전화) 0333-652-0108/ (연구실) 0333-651-2835/ 016-399-0828

▶**박강수** 동문(대학원·조선대학교 강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60-59번지
(전화) 062-362-1145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 '주소 업데이트' 내용 중 이승주 동문은 59회가 아니라 58회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김기순)